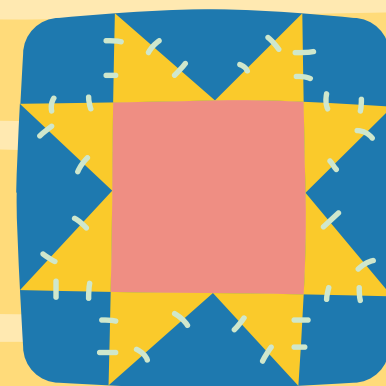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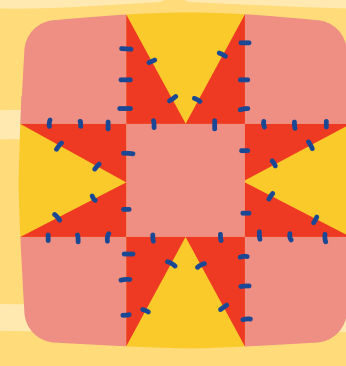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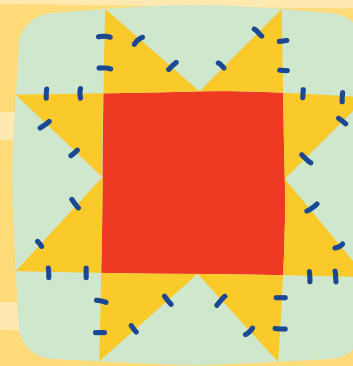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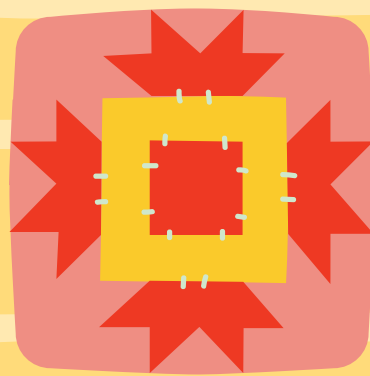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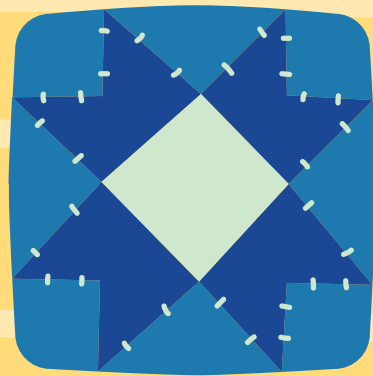




유현 준혁 독서사랑

퀼트 할머니의 선물로 배우는 재미있는 금융교육

4회차

2024.10. 20



열심히 배워봐요~!

오늘의 학습 목표

0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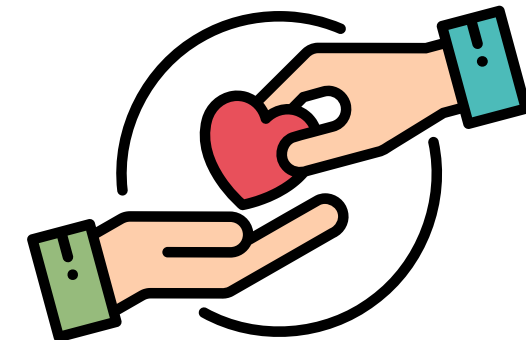
행복은 물질적 풍요로 얻을 수
없다는 진리를 알아갑니다

02



활동 : 나만의 기부계획

03



나눔에대한 가볍고도진
지한 고찰

01

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놀았어요!

활동 사진 모음

우리의 마지막을
기념하며, 새로이
도약하겠습니다!

REC 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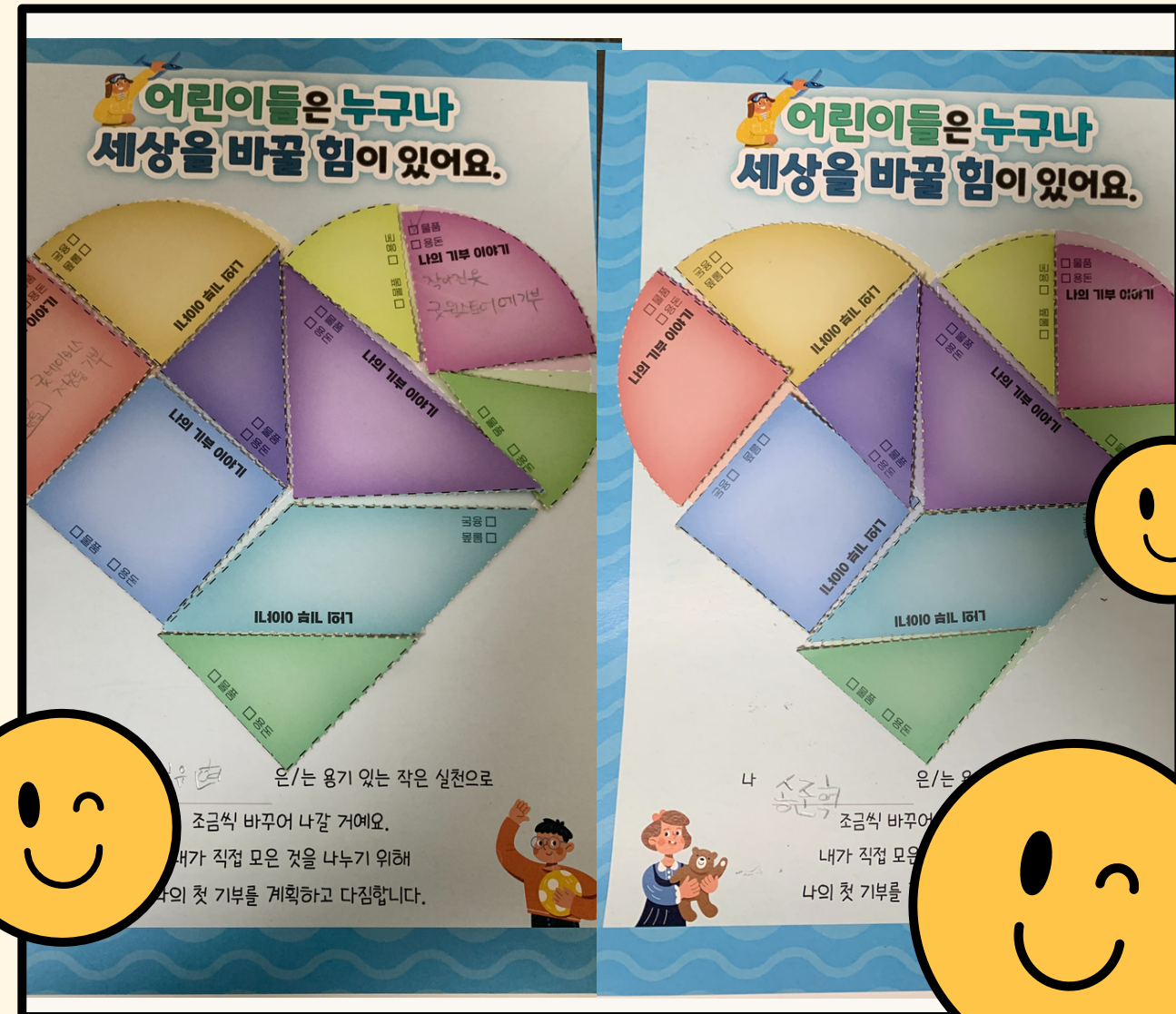


진행 일정 : 2024.10.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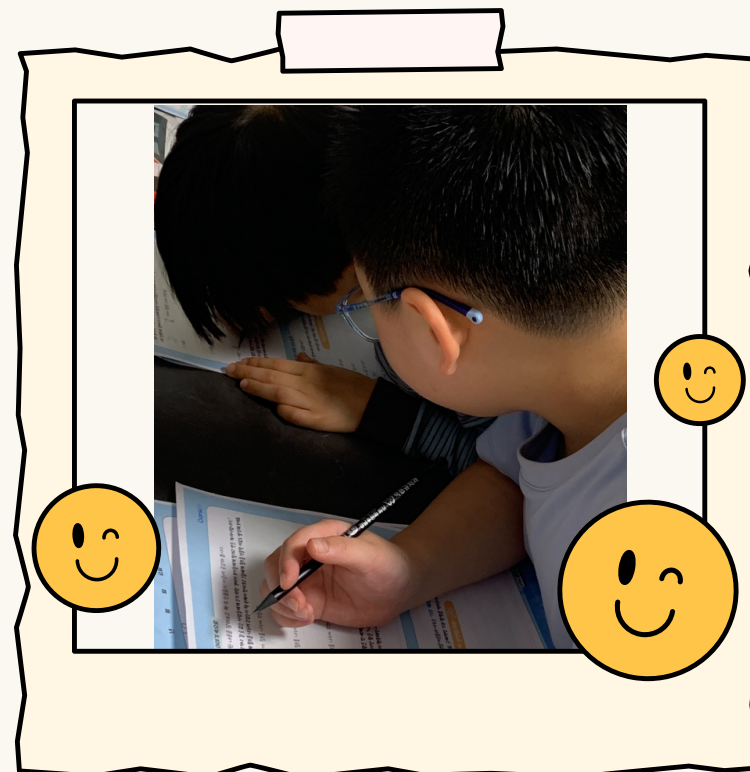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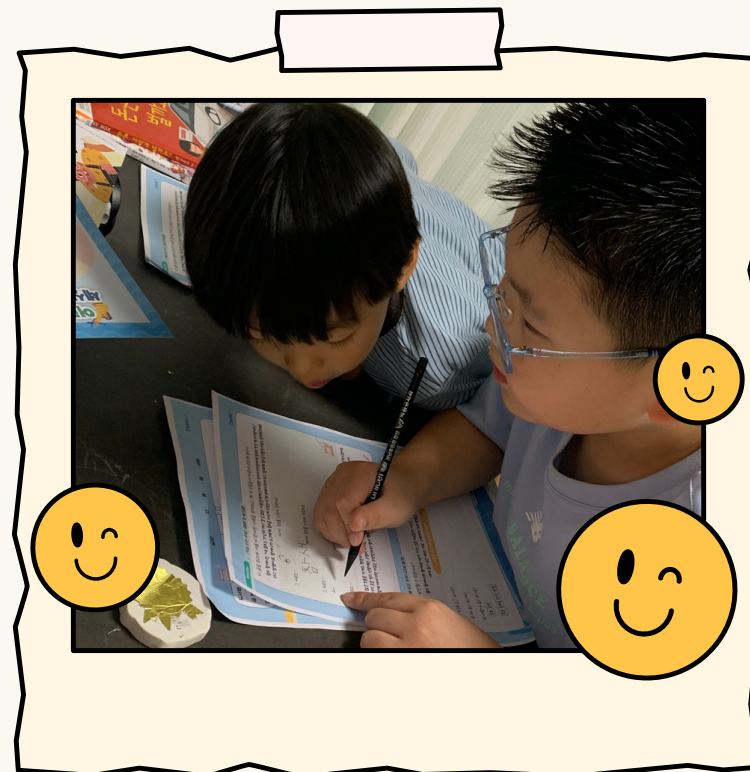
장소: 유현이네 집

참여인원 : 배유현, 송준혁 (유현모 ,준혁모)

유현 준혁이의 즐거운 독서금융교육



유현 준혁이의 즐거운 독서금융교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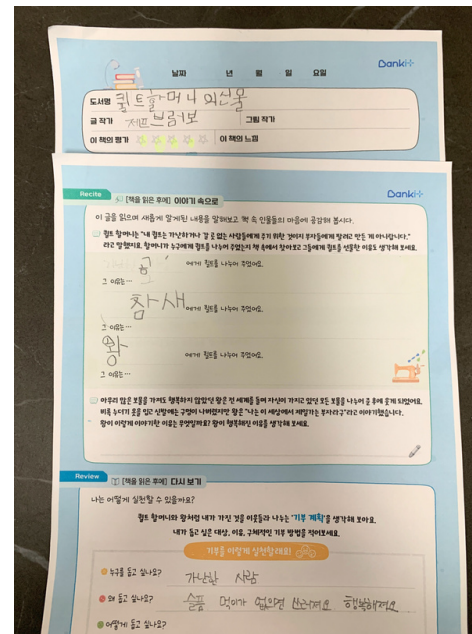
우리가 읽은 책과 활동교구들

책 01



퀼트 할머니의 선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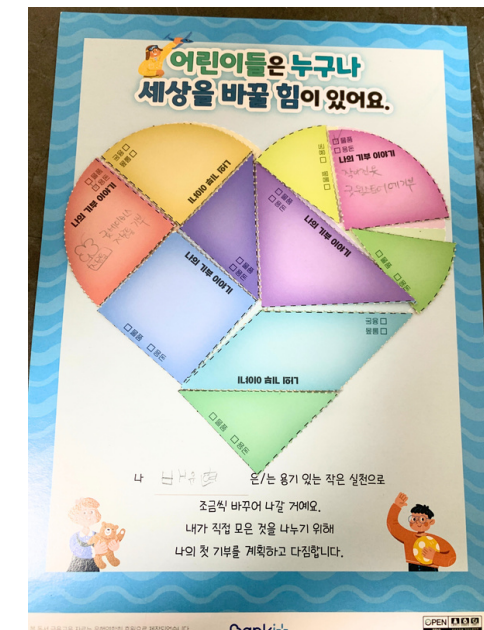
활동지 02



퀼트할머니의 선물

BY SQ3R

활동교구 03



나의 기부계획

흥미로운 내용 SQ3R

1. 살펴보기

- 산속 퀼트 할머니와 욕심 많은 왕님 이야기
- 퀼트를 통해 배우는 행복의 의미

2. 궁금한거 생각하기

- 왜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퀼트를 주었을까?
- 왕님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?
- 퀼트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을까?



3. 책 읽어 보기

5. 다시보기

-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
-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
-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

4. 핵심문장 찾아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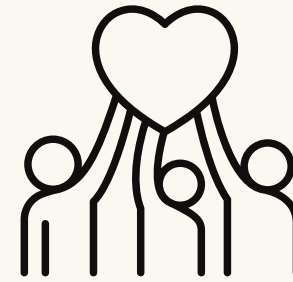
- "기쁨과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"
- "세계 제일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"
- "행복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"

책을 통하여 배운 멋진 것들



퀼트할머니의 선물을 통해 배운 멋진 것들

1. 진정한 행복은 결코 물질적 풍요로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
2.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.
3. 돈이나 물건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값지다는 것



우리가 한 재미있는 활동들

- ‘퀼트할머니의 선물’ 책 읽기
- 나만의 기부 계획 세우기



새롭게 배운 멋진 것들

1.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
2. 안 쓰는 장난감을 깨끗이 닦아서 기부하기로 했어요.
3. 기부를 통해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뻐했어요.

유현준혁 독서사랑의 이야기



유현이와 준혁이, 엄마들의 이야기

유현,준혁이의 이야기

유현이의 다짐

“퀼트 할머니가 사는 안개 낀 산꼭대기가 정말 신비로웠어요. 할머니가 만드시는 퀼트는 마법처럼 반짝거렸는데, 그건 아마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일 재미있었던 건 왕님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부분이에요. 왕님 옷은 다 낡았는데 얼굴은 점점 더 빛나는 게 신기했어요. 우리 유치원에서도 지난번에 친구한테 크레파스를 빌려줬을 때 그 친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.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!”

준혁이의 다짐

"처음에는 왕님이 욕심쟁이라서 별로였어요. 하지만 퀼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무서운 왕님한테도 굴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주셨거든요. 저는 왕님이 변하는 게 신기했어요. 선물 받는 걸 좋아하던 왕님이 나중에는 선물 주는 걸 더 좋아하게 됐잖아요. 저도 지난주에 동생이랑 장난감 나눠 가지고 놀았는데, 동생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. 이제는 제가 가진 걸 나누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!"

엄마의 이야기

유현 엄마 : 천우영

"처음에는 단순한 동화라고 생각했는데, 아이의 변화가 놀라워요. 킴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나눔의 가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. 지난주에는 자기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'엄마, 이거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면 어떨까요?'라며 제안을 하더라고요.

책 속 이야기가 아이의 첫 기부활동의 마중물이 되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에요. 요즘은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, 친구들과 함께 알뜰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어요. 수익금으로 쌀을 사서 기부하자는 아이디어도 직접 내더라고요. '쌀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!'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답니다."

이런 작은 시작들이 우리 아이의 평생 나눔 습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. 한 권의 동화책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.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."

준혁엄마 : 최수경

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. 지난 주에는 유치원에서 친구가 아파서 결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를 편지와 함께 보내자고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등원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덩달아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.

매일 저녁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'이건 동생이랑 같이 쓰고, 이건 기부하면 어때요?'라며 스스로 나누기를 계획하고 있어요. 특히 자기가 제일 아끼던 로봇 장난감도 기부 물품에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'이거 받은 친구가 분명 기뻐할 거예요. 왕님처럼요!'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린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해 보였습니다.

킴트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준 것 같아 참 감사해요.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



유현준혁 독서사랑

**"행복을 함께 나누는
유현이와 준혁이가 되겠습니다!"**

이상, 마지막 활동 내역이었습니다.

